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 복음기도신문

##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http://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http://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http://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 전 세계 10년 간 순교자 수는 ‘90만 명’

### 2016년에는 9만 명...6분에 한 명꼴

미국 고든-콘웰 세계기독교연구 센터는 최근 ‘박해받는 크리스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 하다가 순교한 크리스천의 수가 9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리스천 순교에 관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현대 실정을 분석해 온 고든-콘웰 센터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는 총 9만 명이 순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분마다 한 명의 크리스천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는 셈이다.

고든-콘웰 센터는 “이번 연구에서 ‘순교’란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유로 적대적인 폭력에의 희생’이라고 정의했다.”며 “‘순교’는 전쟁과 전투, 우발적 살인과 집단 학살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연간 90만 명이라는 숫자는 종교와 연관된 테러에 의한 희생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총 희생자 수의 3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70%는 아프리카에서 부족 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숫자다.

한편 크리스천 박해 감시기구 오픈도어스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 사이에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순교자의 수를 약 1200명으로 집계했다. 이 수치가 낮은 이유는 집계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건만을 포함시키고 북한을 포함해 이란과 이라크에서의 사망자 수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오픈도어스는 “지난 3년간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했으며 2016년은 ‘박해를 받는 최악의 한해’였다.”고 전했다. [GNPNEWS]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11)

**기도** | 살아계신 주님. 열방에 있는 형제들의 죽음의 의미를 지금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날에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낸 이러한 형제들의 승리를 통해 교회는 오히려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마침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 이것을 네가 믿느냐?



- 이집트 동굴교회

제공: WMM

###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한 원망 섞인 마르다의 말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나는 시체를 향해 주님은 명령하신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로 동인 채로 나

사가 무덤에서 나온다.

당신은 믿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상태였던 자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감각이 살아날 것을 믿는가?

믿음으로 그분을 보게 되고, 음성 듣게 되고,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한복음 11:25~26) [GNPNEWS]

다음호는 2월 19일자로 발행됩니다



###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28)

## ‘더 나은 삶’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삶’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예수’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에 다른 훌륭한 분도 많지 않나요?”

‘세상의 훌륭한 분들의 가르침을 따라 나름 잘 살아가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학교나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끊임없이 교육

되었습시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 많았던 좋은 가르침에 하나를 더 하여 조금 더 나은 삶으로 개선해 보라는 권유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꾸라는 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선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신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신분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당신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입니다. 그분은 부활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을 때 당신의 옛 자아는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 당신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영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당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훌륭한 가르침을 따라 더 나은 삶을 추구해 왔던 당신, 그래도 특별히 달라진 것 없는 당신.



### INSIDE

**02** 뉴스 | 한국 “열방을 섬길 경건한 사람들 세운다” 헤브론선교대학 개교

**03** 기획 | 믿음의 세대를 세운다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한 선교 네트워크 총동원

**05** 인터뷰 | 이윤희 선교사 “기도로 씨앗을 뿌리며 짝을 틔우시는 주님을 경험했어요”



**06** 특별기고 | 김용의 “그리고 그 다음에는?”

**08** 종합 | 부즈 인 시네마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해도 노래를 안한다고는 못할 것”

이제 당신이 하던 그 모든 피나는 노력을 그만두고 신분을 바꾸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려 주실 겁니다.

좀 더 개선된 상태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GNPNEWS]

한국

# “열방을 섬길 경건한 사람을 세운다” 헤브론선교대학 개교



▶ 2월 2일 2차 입학설명회가 서산 헤브론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1월 10일 열린 입학설명회 모습.

복음과 기도로 이 사회와 열방을 섬길 경건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 ‘헤브론선교대학’이 오는 3월 개교한다.

헤브론선교대학은 지난 1월 10일 충남 서산 헤브론센터에서 입학설명회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꿈꾸며 복음과 기도가 체질화된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올해 개교와 함께 2년

간의 영성과정에 참여할 입학생을 모집한다. 복음교과, 성경신학, 선교현장 과정으로 이뤄진 영성과정은 제자화된 교수에 의해 성경 중심의 교과과정을 공동체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길러낼 예정이다.

전공은 이같은 영성과정을 마친 2년 이후부터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 개설된 대학은 복음기도신학 대학과 교육대학이 있다. 향후 2년

뒤에는 이웃사랑대학, 커뮤니케이션대학, 선교영어대학 등이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이 학교의 이사장 김용의 선교사는 이날 입학설명회를 통해 “500년 전 작은 씨앗 같았던 한 청년 마틴 루터의 믿음의 순종이 암흑시대를 깨뜨리는 종교개혁의 발화점이 되었듯이,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이 학교를 통해 십자가복음이 실제가 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세워져,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의 선교사는 또 “이 학교는 무보수 교육선교사들로 교수진과 교직원들을 구성하게 되며,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복음기도동맹원의 단체와 기업, 교회, 개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학교는 오는 2월 2일 2차 입학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 당일 입학원서가 유료로 배포된다. 문의 070-4803-9078, hufm@hanmail.net [GNPNEWS]

한국

## 한국선교연구원, “2016년 선교사 수 성장률 소폭 증가”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2016년 말 현재 한국 선교사 숫자가 2만 1075명으로 지난해보다 406명 증가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KRIM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첫 주까지 153개국 2만 1075명(156개 단체)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 한국선교동향’을 통해, 전년 대비 1.9% 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 초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파송선교사 수가 2년 연속 동일한 2만7205명으로 정체 상태로 밝힌 바 있다.

연구원이 밝힌 선교사 수 증가율이 2013년 1.45%(2만85명), 2014년 1.90%(2만467명), 2015년

1.01%(2만672명)로 하향세를 보인다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원은 “신학교에서 배출된 신학생들 중 일부가 해외로 진출한 것”으로 진단했다. 졸업생 과다 배출은 한국 교회의 선교에 대한 인식 약화, 선교비 모금의 어려움 등에도 불구하고

하고 선교사 자원수를 당분간 지속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미국 선교학 저널인 국제선교연구회보(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rch, OMSC 발행) 2017년 4월 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GNPNEWS]



한국

## 미디어 선교사를 찾습니다

복음기도신문을 발간하는 복음과 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를 섬길 미디어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이 시대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올바른 진리를 제시하고 믿음의 삶을 살며 미디어 사역을 섬기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지원자격은 순회선교단 복음학교 수료자로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 없어도 누구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면접을 거쳐 1년간의 미디어 선교사 공동체 훈련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감: 2월 18일.

문의 ☎ 070-7417-0408, gnmedia@gnmedia.org [GN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6~1.16)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한겨울 전력부족 사태...수 천명 항의 시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력부족 사태가 한겨울에 며칠간 지속하자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를 했다고 13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하마스 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시위라는 이유를 대며 시위대의 행진을 막고 공포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했다.

행복을 위해서 시위를 하며, 또 반대편에서는 무력으로 막는 이 율배반의 모습을 목도합니다. 이곳의 위정자들이 다급한 생존의 문제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전력문제를 넘어 인간의 죄와 심판의 문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 중국 독신자 2억명...“결혼보다 일, 혼자가 편하다”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독신자의 나라’가 될 전망이다. 현재 시사지 요망동방이 최근 보도했다. 중국의 통계조사 결과 약 2억 명의 성인이 미혼인 상태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은 대부분 일에 전념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결혼과 출산의 사명을 등한시 하는 반역의 세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으로도 만족 할 수 없음을 중국인들이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중국 그리스도인들 가정을 통해 온전한 하나 됨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 대선 패배 감비아 대통령, 국제사회 사퇴요구 거부...“간섭 말라”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패배한 서아프리카 감비아의 야흐야 자메 대통령이 사퇴 거부 의사를 또다시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우리의 선거와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이 전혀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하나님, 권력의 정점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의 탐욕을 직면합니다. 감비아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름답게 권력이 이양되게 하옵소서. 권력자들에게 의해 국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1월 5주 ~ 2월 2주

#### 1월 5주(1.30~2.4)

1.30~2.3(14시~19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1.30~31, 2.2~3(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2.3(08시~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1.19~20(06시~18시)

▶서울 광진구 / 한국중앙교회 (송\*\*) 010-6779-4120

#### 2월 1주(2.6~2.11)

▶성남시 수정구 / 금광교회 (민현미) 031-731-1001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 (김\*\*) 010-6280-4419

2.6~10(14~19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2.6~7, 2.9~10(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2.10(08시~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2.10~11(06시~18시)

▶서울 광진구 / 한국중앙교회 (송\*\*) 010-6779-4120

#### 2월 2주(2.13~2.18)

▶전남 광주 / 십자가복음교회 (김\*\*) 010-9883-2347

2.13~17(14~19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2.13~14, 2.16~17(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2.17(08시~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2.17~18(06시~18시)

▶서울 광진구 / 한국중앙교회 (송\*\*) 010-6779-4120

#### 기도참여 문의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 070-4803-9026~7, 010-4192-4365 www.prayer24365.org

📖 기획 | 믿음의 세대를 세운다

#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한 선교 네트워크 총동원

다음세대를 선교사로 양성하는 비전을 품고 출범한 한 기독교의 꿈이 현실로 드러났다.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의 비전을 품고 2013년 개교한 헤브론원형학교가 최근 2년의 단기선교 과정을 마친 이 학교 졸업생들을 국내외 현장 선교사로 파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5년에 졸업하고 2년간의 단기선교 과정을 마친 이들은 지난 1월 6일 '용감한 정예병 선교보고 및 수료식'을 끝으로 국내외 선교단체에 취업되어 L국, C국, T국 등으로 파송된다. 또 일부는 현장 경험을 통해 필요성을 느낀 전문영역을 공부해 전문인 선교사를 꿈꾸며 선교현장이나 국내에서 캠퍼스 선교사로 학문과 사역을 병행하게 된다. 용감한 정예병이란 이 학교 졸업생이 선교현장에서 2년간의 아웃리치 기간에 불리는 호칭이다.

## 졸업과 함께 단기선교 통해 선교현장 체험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차세대 선교사 양성을 꿈꿔온 이 학교가 거둔 결실은 아직 떡잎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음세대를 복음과 기도를 통해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세대 교육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 지난 2016년 헤브론원형학교 2기 졸업식(좌)과 2년간 선교현장을 체험하고 돌아온 다음세대선교사의 선교보고 모습.



무엇보다도 소수에 불과한 이 학교 졸업생 전원이 선교사로 헌신해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이날 선교보고를 통해 지난 2년간 선교현장을 체험한 다음세대 선교사들은 한결같이 '선교사라는 부르심에 순종해 걸었던 시간이 진정한 주님이 주신 축복이며 앞으로도 이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6명의 1기 졸업생 뿐아니라 2기 졸업생 6명도 현재 C국, T국 등에서 아웃리치를 겸한 단기선교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올 2월에 졸업하는 3기(10명) 역시 I국, T국 등으로 2년 일정으로 파송된다.

헤브론원형학교의 순종의 발걸음은 또 국내외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이라

는 공동의 부르심에 참여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며 다양한 시너지를 낳고 있다.

## 차세대 선교자원 발굴 위한 모판

이 학교의 수십여 명 교사들은 모두 교육선교사로서 자비량 사역자로 섬기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파트타임으로 교육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2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헌신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다음세대 교육에 참여한 것이다.

또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해 국내외 선교단체들이 전방위적으로 연합하며, 차세대 선교자원 발굴을 위한 모판이 형성되고 있다.

교사들은 대부분 교육선교사 헌

신 이전에 복음에 근간한 한 선교단체의 훈련과정을 짧게는 6개월부터 몇 년간에 걸쳐 선교와 기도, 공동체 훈련을 통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세를 갖게 됐다.

또 해외의 현장 선교사들은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의 필요성에 공

감,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최우선순위로 설정, 단기선교사들이 선교현장에서 선교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다.

이 모두 차세대 선교자원 발굴을 위해 관련 단체 및 선교사들이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의 정신으로 협력해 선교완성을 위한 대연합만이 선교완성을 소망하는 우리나라 나아갈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헤브론원형학교 학생들은 매년 복음캠프를 통해 자신들이 깨닫고 순종하게 된 믿음의 삶을 나누며 또래 청소년들을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 또 용감한 정예병으로 불리는 이 학교 졸업생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열방 곳곳에서 동년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수련회를 열어,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GNPNEWS]



▶ 용감한 정예병들이 연합하여 C국에서 다음세대복음캠프를 마치고 훈련생과 섬김이들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 “현장 선교사와 교회가 한 몸임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2015년에 1기 용감한 정예병 파송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희 교회도 파송교회로 2기 용감한 정예병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랬습니다.

결국 교인 세 명이 이 일에 아멘하게 하였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C국으로 떠나는 전성진 선교사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C국이라는 사실에 더 마음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그 땅은 제2의 고향이 된 듯 아주 그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성진 선교사님은 그 땅에 열방의 먹잇감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선교사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히 2:3)”

파송교회로서 기도와 물질 함께 섬기는 일에 처음 순종하다보니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허락한 재정을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교회의 필요보다 선교비에 항상 두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재정을 보내지 못해

마음이 아려 새해에는 내 열심이 있는지 선교헌금을 더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동명교회는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였고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편지가 조금 늦게 올 때면 설레기도 했지만, 동시에 주님의 일하심이 기대도 되었습니다. 기도편지를 보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편지가 오면 교회의 다음세대 아이들이 먼저 기도편지를 읽어봅니다. 편지에 담긴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이 아이들도 어느새 선교사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 모두를 선교적 삶을 살게 하

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이 여러 번 아팠다고 할 때면 한 몸 된 우리가 기도로 함께 더 싸우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해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워 회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연약함에 무너졌다고 할 때는 동일하게 저 또한 연약함에 무너짐을 보며 한 몸이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저도 동일하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C국 공동체에서 겪는 일은 동일하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이라 너무나 공감되어 사랑으로 덮어지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현장의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열방의 다음세대를 위해 복음 캠프를 섬기는 것을 보며,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

의 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C국에서 복음캠프를 한다는 긴급기도제목을 보았을 때는 현지 학교 학생들이 복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후 기도편지에 적혀 있었던 T국 복음캠프에서 주님이 행하신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또 L국 복음캠프에서는 영어로 강의를 준비해야 하는 선교사님에게 부담감보다는 기쁨을 주시고, 또 장학금으로 재정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을 보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섬기기보다 섬김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을 보게 하실 주님의 열심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더욱 기도로 섬길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GNPNEWS]

김복자(동명교회)

기획 | 파키스탄 선교 역사 (3)

## 도시에서 농촌으로, 상류 카스트에서 불가촉천민에게로

무슬림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파키스탄에서 기독교 역사는 그리 폭 넓게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파키스탄의 기독교 인구는 3% 수준. 그것도 19세기 후반 불가촉천민 계급인 '추흐라'를 통해 집단개종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후의 상황을 파키스탄에서 30년간 사역한 영국의 프리다 캐리 선교사(Church Mission Society 소속)가 정리한 자료를 번역, 소개한다. <편집자>

불가촉천민 디트를 통해 시알코트와 그 근방에 있는 대부분의 추흐라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1915년 즈음, 구지란왈라와 구르다스푸르 인근 시골 마을에 있는 또 다른 추흐라들 안에도 회심이 일어났다. 시알코트, 구지란왈라, 구르다스푸르 세 곳을 중심으로 추흐라 계급의 복음운동이 가속화되면서 수천 개의 교회들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 선교사들이 이미 회심한 기독교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동안 파키스탄의 첫 번째이자 엄청난 복음주의 운동은 이렇게 추흐라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다.

1877년 미국합동장로교회(American United Presbyterian, 이하 UP)선교회는 그동안 그들이 집

중해 오던 도시 중심의 선교 전략에서 벗어나 시골 지역을 대상으로 사역하기로 결심하고 선교회의 관심을 추흐라 복음 전파에 쏟았다. 이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던 기간 동안, 1881년에서 1891년 사이 UP선교회에 보고된 세례 교인의 숫자는 660명에서 1만165명으로 늘었다.

### 추흐라에 대한 경계와 반발

반면 다른 선교회는 이 추흐라 복음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주저했다. 개종자들이 종교 협회를 통해



▶ 비가 내린 후 도로의 물을 제거하는 불가촉천민계급의 청소부들 모습(출처: 월드와치모니터)

직업이나 토지와 같은 물질적인 이익을 찾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경계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주 사역 대상으로 삼았던 높은 카스트들이 복음에 반응하려 할 때 불가촉천민 추흐라 사람들과 교제하고 세례까지 주는

선교사들의 행동이 방해요소가 될까 봐 꺼려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추흐라 계층의 개종이 다른 힌두나 무슬림 카스트의 개종 비율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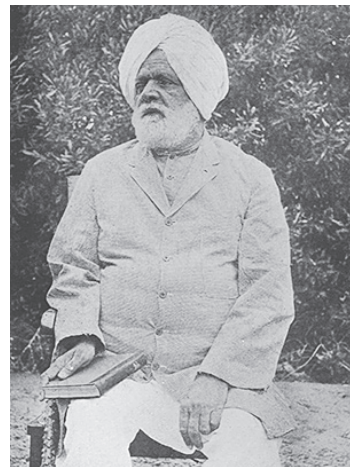
1880년대 프레데릭 스톡과 마가렛 스톡은 추흐라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결국 같은 지역의 불가촉천민이었던 메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작은 복음 운동이 조기에 끝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 메그 사람들은 베를 짜는 불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가져왔다.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 낮은 계급의 사람들과 반드시 가까이 어울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것은 복음의 확산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었다."

### 선교회의 방향을 바꾼 복음운동

그러나 1880년대 중반, 추흐라 복음운동은 엄청난 수의 회심자료를 통해 같은 지역에 있던 선교회에 큰 도전을 주었다. 선교단체들은 문맹인 회심자들을 제자화하기 위한 인력과 전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UP선교회는 디트와 같은 추흐라 계급의 농촌 복음전도자들에게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도록 위탁했다. 대부분의 복음전도자들은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교리 문답서,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다른 여러 성경 구절 등을 가르칠 수 있었다.

이 복음 운동은 UP선교회의 교육 사업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기존의 선교회 교육은 힌두와 무슬림 카스트 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부 기독교 교리와 함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도시학교 위주의 교육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미래의 기독교 리더를 개발하고 훈련하기 위한



▶ 시편을 편자브어로 의역한 Imam-ud-Din Shabaz의 모습

학교를 열고 농촌 지역 추흐라 회심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와 일반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다수가 문맹인 추흐라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는 우르드어나 교육받은 도시 사람들이 쓰는 권위 있는 언어보다 편자브어를 사용하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하기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이맘 유딘 샤바즈(Imam-ud-Din Shabaz, 1845~1921)는 시편을 편자브어로 의역해 편자브 지방에서 불리던 토착 음악에 맞추어 부르게 했다. 그의 편자브어 시편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파키스탄 기독교 찬양의 중심에 있다. <계속> [GNPNEWS]



### 선교 통신

## “전쟁 때문에 교회로 몰려든 알레포의 무슬림들”



▶ 알레포 교회와 무슬림 가족이 만남을 갖고 있는 모습(출처: 오픈도어선교회)

아르메니아 출신의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Kristina, 28세)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알레포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나 내전이 시작되고 난 후 험난한 길을 걷게 되었다. 18개월 전, 그녀는 이곳 알레포에서 첫 딸을 출산했다. 그녀는 엄마가 된 첫날을 기억하고 있다. 밖은 전쟁 중이었고, 전기와 가스와 물은 차단되었다. 결국 크리스티나는

남편과 갓 낳은 딸을 안고 레바논으로 떠났다. 처음에는 잠시 동안만 떠나 있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알레포에 폭격이 지속되면서, 그녀와 남편은 레바논에서 전쟁이 끝나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폭력 사태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알레포를 떠났다. 그들은 기약 없이 고국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피난과 도피의 삶을 선택했다. 크리스티나가 다녔던 알레포의 교

회에는 현재 예배 출석자의 10%만 남아있다고 한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알레포의 교회들이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고도 넘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실향민들이 떠난 교회의 빈 자리를 무슬림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알레포의 여러 지역에 있던 많은 무슬림들은 치열한 전쟁 중에 피난처를 찾기 위해 크리스천 주거 지역으로 도망쳐 왔다. 이렇게 많은 무슬림들이 크리스천들과 어울리게 된 적은 없었다. 그들은 교회의 안의 크리스천 여성들이 무슬림인 자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대부분의 크리스천 여성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며, 술 마시는 데 시간을 소비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크리스천 여성들의 섬김을 통해 감동받고 있다.

특히 무슬림 여성들은 교회가 크리스천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시

리아인들에게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 사실에 놀라 관심을 가진다. 그들이 다니는 이슬람 사원의 가르침은 언제나 두려움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시리아 현지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다시 생각해보며, 크리스천에 대한 적개심을 풀고 있다.

또한 성경을 읽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무슬림 어린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무슬림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대부분 남편들은 매우 엄격한 편이라고 한다.

크리스티나는 무슬림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을 단순히 청소하고, 아이 낳고 양육하는 기계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후 자유와 만족을 느낀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무슬림 남성들은 여자를 열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실제로 자신들을 존중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천국을 맛보는 것이다. 그들은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살 수 있으며,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계속된 전쟁 한 가운데서, 크리스티나는 중동지역 교회의 황금기를 전하고 있다.

“무슬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GN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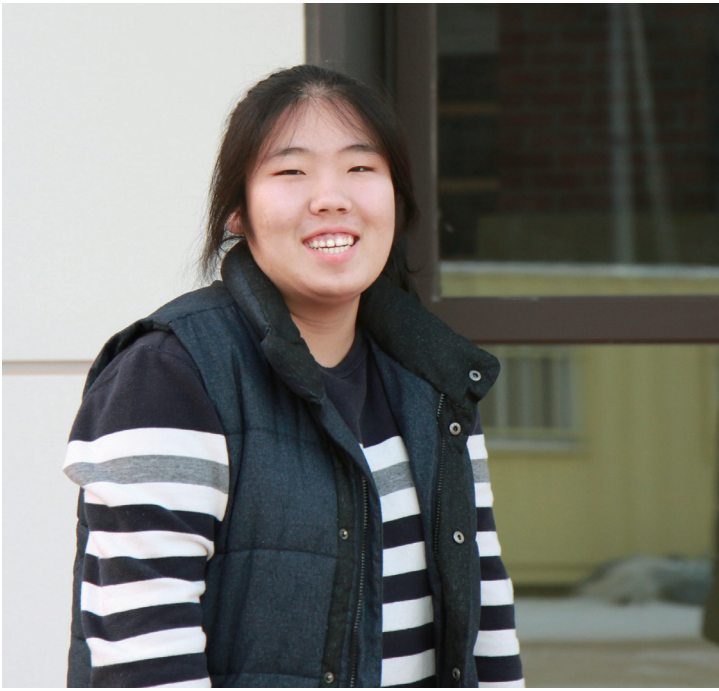
<출처: 오픈도어선교회>



▶ 크리스티나와 딸이 이야기 책을 읽고 있는 모습(출처: 월드와치모니터)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기도로 씨앗을 뿌리며 싹을 틔우시는 주님을 경험했어요”



믿음을 씨를 뿌리는  
이윤희 선교사

올해 나이 스물둘의 이윤희 선교사를 만났다. 아직 앳된 얼굴에 미소 가득한 그녀에게 어떻게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냐고 묻자 “글쎄요. 그냥 주님이 선교지에 남으라고 하셔서...”라며 수줍은 웃음으로 대답했다. 주님의 부르심에 단순하게 응답한 이 선교사는 다음세대선교사를 양성하는 헤브론원형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 용감한 정예병이라는 이름으로 창의적접근국가인 L국에 파송되어 해외 단기선교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교사로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 선교사로 자신을 드리는 게 겁나지 않았어요?

“처음 L국에 가게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뭔지, 그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안전한지,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돼서 두렵지 않아요. 뭐, 병이 나거나 죽을 위기가 오면 겁나긴 하겠지만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드렸다고 겁나진 않아요.”

-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하네요.

“헤브론원형학교는 성경이 교과서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복음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해하고 그 모든 진리가 제 삶에 실재가 되도록 순종해보며 살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것은 맞지만 L국에서의 시간은 그 농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들의 보호 아래 선포된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었다면 L국에서의 시간은 우리가 직접 말

씀을 받고 순종해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몸소 경험했던 시간이었어요.”

## 열방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 더 궁금해지는데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눠주세요.

“학교를 졸업하면 2년 단기선교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랑 살까, 어떻게 살까, 어디로 가게 될까,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결국 저 외에 2명의 자매들과 함께 L국으로 결정되었고 다른 나라에서 3개월 언어연수를 하고 L국에 가게 됐어요. 현지 대학에 다니며 단기선교사역을 감당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아직 대학이 학기 중이어서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L국에 가면 누군가 우리를 불러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할 일이 없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도했죠. 주님이 모세와 40일 동안 시내 산에서 동행 하셨다는 말씀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도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기도하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겠다 생각하고 3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후 그 나라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리서치도 하고, 팜밭기 기도도 하고, 우리가 가게 될 학교에서 기도 모임도 하면서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그저 기도 하며 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 학교생활은 어땠어요?

“개강을 하고 학교에 가서 현지 학생들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중 눈에 띄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은 김이라고 하는데요. 여잔지, 남잔지. 처음에는 남잔데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 여자였어요. 호르몬약을 먹고 있었어요. 이곳은 트랜스젠

더, 여장남자, 동성애자가 많아요. 김을 보며 처음엔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김은 너무 밝은 아이였어요. 우리와 같은 반이 되었고 우리가 외국인인니까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그러다 기도하면서 김과 복음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김이 우리에게 적극적이어서 조금 꺼려지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는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성정체성에 대해서도 나눴어요.”

- 김은 잘 받아들였나요?

“글쎄요. 김은 이미 여자 친구가 있는 동성애자였어요. 김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창조 때 이야기를 하면서 “넌 여자야.”라고 말하면 그냥 듣고만 있어요. 사실 한 번도 그 아이한테 여자다, 남자다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김을 계속 만나며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김에게 찬양도 불러주며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1년 뒤 김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하다가 후에 한번 만나게 됐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오직 주님께 맡길 뿐이에요.”

- 그랬군요. 김이 꼭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겠네요. 학교생활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첫 1년은 여러 가지가 어려웠어요. 재정적 영역도, 관계의 영역도, 게다가 비자도 쉽지 않았어요. 일단 학교가 시작됐으니 학비와 생

지도 없을 때는 학교를 걸어서 다니기도 하고요. 신기하게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셋 중 한명만 불평해도 분위기가 어려워질텐데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살이 너무 찌서 운동하라고 하시나보다 하면서 걷기도 하고, 밥을 못 먹을 때는 우리가 살이 심하게 많이 찌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별로 배 안고프다 말하면서 웃기도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파송교회에서 걱정하실 텐데. 그렇게 많이 굶지 않았어요. 한 두 번요.(웃음)”

## 현지에서 만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

- 참 행복한 경험을 하신 것 같네요. 비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도 외국인 학생은 우리가 처음이었어요. 학생비자가 계속 거절당하고 지연됐어요. 이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비자가 안 나오니까 거절당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나?’, ‘난 여기서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기도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보이는 상황에 반응하고 흔들리는지 보게 됐죠. 그리고 얼마 후 감사하게도 비자가 나왔어요.”

- 한결음 한결음이 오직 믿음뿐이네요. 관계의 영역도 어렵다고 했는데 어땠나요?

배웠던 진리대로 현장에서 실제 살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것을 기도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했죠.  
주님과 나밖에 없으니 진짜 말씀 따라서 사는 삶이었어요.



활비가 필요했어요. 우린 오직 하나님만이 재정의 공급자라는 믿음 외엔 없으니 믿고 기도하는 방법 밖엔 없었어요. 매일 하는 기도모임에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한 사람한테 들어온 재정으로 세 명이 살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재정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살았어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 됐죠. 그마

“서로 너무 다르게 살다가 만나 스타일들이 다 달라서 싸웠어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빠치기도 했어요. 지체들이 방을 잘 치우지 않는 것 때문에 저도 어려웠어요. 이불도 안 개고 짐 정리도 안한다고 제가 잔소리를 했더니 잔소리했다고 화내고, 그럼 저도 화내고, 결국 싸우게 됐어요. 어느 때는 일정을 결정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 마음이 상해서 말을 안 하다가 모임이 끝난 적도 있어요. 그럴 때면 서로 피해 다니기도 하지만 그걸로 살았어요. 네 돈이 내 돈을 함께 해야 하니까 결국 피

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도 그렇게 오래가진 않았어요. 매일 아침예배, 기도 모임, 팀 모임을 함께 하면서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을 터놓으면 사건은 종료돼요. 서로 잘 몰라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어요.”

- L국에 있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살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된 것 같아요. 헤브론원형학교에서는 복음을 온실 속에서 보호받으며 알아갔다면 이곳에서는 배웠던 진리를 주님과 함께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결정하는 것도 우리끼리 기도하고 결정해야 했죠. 주님하고 나밖에 없는 시간이니까 진짜 말씀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 주님이 허락한 곳에서 기도 모임을 계속하면서 이곳에서 예배가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님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영어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 영어예배는 어떻게 시작이 됐죠?

“한 선생님이 예배드릴 곳을 찾다가 저희와 예배를 드리기로 하셨어요. 국적에 상관없이 주일 이후에 1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도 현지 청년들과 드리는 예배가 생기는 게 소원이었으니 당연히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처음 기도만 했을 땐 참 막막했어요.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고, 또 기회가 돼서 예수님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해요. 기도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복음을 나눠도 반응이 없었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평생 살아온 사람들을 이 복음이 변화시킬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답답한 때도 있었어요. 그때 한 찬양을 부르게 되면서 힘을 얻게 됐어요.”

- 그 찬양이 뭔가요?

“찬송가 469장이었어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나중에 주님이 칭찬하시면 됐지. 누가 거두든 기도로 뿌린 씨앗은 언젠가 주님의 때에 거둬지겠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6면에 계속>



특별기고 | 헤브론선교대학 개교에 즈음하여

##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보게 젊은이!

축하하네! 아직은 젊음이 있으니,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길에 있으니!

내가 두어 가지만 묻겠네.

먼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려나본데, 그 학업 왜 하려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태리 로마에 있는 우르바노대학의 정문에 새겨진 글귀라네.

가난한 범대생이 고민 끝에 후한 자선가 빌리 공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하자 그 학생에게 돈을 내주며 물었다네. 졸업한 후에는 무슨 계획이 있나? 예, 변호사가 되어 훌륭한 일 하려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도 하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공... 행복... 늙겠지요... 그리고 죽겠지요! 거기에서도 끝나지 않는 질문 앞에 고개를 떨군 젊은이에게 엄한 말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과 영원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네!” 충격과 큰

깨달음이 찾아왔고 후에 총장이 된 그가 대학 정문에 새겨 놓은 질문이 되었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다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단 한 번 밖에는 갈 수 없는, 남이 아닌 자신의 인생길을 나서며 누굴 믿고, 누구를 따라가겠는가?

아무런 보장도, 근거도 없는 이론. 제대로 검증돼 본 적도 없는 유한한 인간의 타락하여 오만한 지성. 그것의 위세와 화려한 유혹에 주눅 든 채, 유행과 경쟁에 떠밀려 고작 밥벌이나 하려고 학위에 매달려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맡기려 하는가? 미안하지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네.

아니면! 머리 들고 두 눈 부릅뜨고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 답을 얻고 당당히 걸어가겠는가?

그럼, 길을 묻는 그대에게 확고하고 분명한 대답을 해 주겠네!

길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정오의 빛보다 더 분명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담대히 서서 걸어가게. 거기서 참 자유와 나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지혜와 삶을 얻게 될 것이네. 역사상 가장 완전한 검증과 결과로 확인된 바로 그 길이네.

이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겠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일세.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이 약속을 실현할 한 곳 헤브론선교대학을 기쁘게 추천하네! 이 학교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운다. 둘



째, 성경을 주교과서로 삼고 경건한 생명의 그리스도인을 세운다. 셋째, 이웃과 세상을 섬길 거룩한 씨앗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용감한 정예병인 학생을 키운다.

이 일을 위해 이 학교는 이런 비전을 품고 있다네.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거룩한 헌신으로 자신에게 주신 은사의 전문성을 조건 없이 내어놓아 섬기고 오직 한 가지 소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섬길 계획이라네.

첫째, 주의 청년들을 섬기는 무

보수 교육 선교사들로 교수진과 교직원들이 구성된다. 둘째,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스승 되시고 주인 되시는 대학으로 운영한다. 모든 운영과 학과 태도 역시 동일한 원칙을 갖는다. 셋째, 이론과 실물 교육이 함께하는 산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복음기도동맹인의 단체, 기업, 개인, 교회가 교육을 겸임한다.

간판만 기독교대학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로 세워지는 이 대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대를 위해 준비되었네! 오라! 배우라! 그리고 열방 향해 나아가자! 주님 곧 오시네, 마라나타. [GNPNEWS]

김용의 선교사(헤브론선교대학 이사장)



## 헤브론선교대학 2017년 신입생 모집공고

십자가 복음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만이  
참된 용기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라! 와서 배우라!  
그리고 열방 향해 나아가라!  
헤브론선교대학에서 만나자!

### 1. 모집 대상

-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 선교적 삶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 대상자 (단, 예외 상황일 경우 상담 가능)

### 2. 입학설명회

- 일시 : 2017년 2월 2일(목) 오전10시 ~ 오후 4시
- 장소 : 헤브론선교대학 교사
- 입학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 2016년 1월 16일(월) ~ 2017년 1월 31일(화)
- 참가신청은 이메일(hufm@hanmail.net) 또는 전화(010-2900-1737)로 접수할 것

### 3. 원서교부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교부(입학원서 전형료 7만원)
- 2차원서 접수 기간 : (2017년 2월 3일(금) ~ 2017년 2월 9일(수)소인까지
- \* 2차 입학설명회에 참여한 자들에 한함
-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문의

### 4. 2차 합격자 입학전형 일정

- 1차 : 서류심사 (1차 합격자 발표 2017년 2월 11일)
- 2차 :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면접일시 : 2017년 2월 13일(월) ~ 14일(화)
- 2017년 2월 16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년 3월 7일(화) 개교 및 입학식

### 5. 학제 및 교육방식

영성과정		전공과정	
1학기	5대 가치에 기초한 영성과정	5학기	전공을 결정하여 각 단과대학에 위탁하여 진행한다.
2학기	복음교과과정	6학기	
3학기	성경신학과과정	7학기	
4학기	선교현장 과정	8학기	

### 6. 전공 선택에 관하여

- 헤브론선교대학에 입학하는 자는 전공을 미리 선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년 영성과정을 마치면서 전공을 선택한다.
- \* 교육대학의 경우 입학전형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당일 입학설명회에서 상세히 설명함

### 7. 학교생활에 관하여

- 헤브론선교대학은 일주일에 3박4일 합숙으로 진행된다.
- 매 학기마다 방학을 이용하여 현장 아웃리치를 진행한다.

### 8. 문의 및 접수처

010-2900-1737 / hufm@hanmail.net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헤브론선교대학

## Interview

(5면에 이어)

### “기도모임과 예배를 드리며 힘을 얻었어요”

“나중 그때를 상상해보니까 기쁘기도 했어요. 이제는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사니까 어디든 가도 상관없고 무엇을 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부르시는 이곳저곳을 섬기다가 복음캠프를 진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어로 해달라는 거예요. 기쁘고 기대도 됐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한국어로 된 자료를 모두 영어로 바꿔야 했죠. 강의, 진행파일, 스케줄표, 파워포인트 자료 등등. 영어라는 게 딱 걸리니까 일이 10배로 늘어난 느낌이었어요. 우리 팀이 잘하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참 재주도 없는 세 사람이 조금씩 순종하니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웃음)”

-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복음캠프는 잘 끝났나요?

“네. 인근 몇 개국 학생들이 참석했는데 복음이 선포되니까 정직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더군요. 영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서 현지 언어로도 통역해 진행했는데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에도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해오던 다음세대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이런 캠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동안 이곳 다음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까 고민하며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커피도 타고, 책 정리도 하고, 기도도 하며 씨앗을 뿌렸는데 캠프를 준비하며 마침내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복음을 들은 한 영혼이 한 명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증인이 되어 또 다른 영혼에게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격이 되던지요.”

- 듣고 있는 제게도 감격이 되네요. 앞으로 계획과 기도제목 나눠주세요.

“2년 단기선교를 통해 배운 대로 열방을 섬길 계획이에요. 2년 동안 주님이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가르쳐 주셨으니 앞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주님이 기대가 돼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지낼 것 같아요. 여러 생각을 하고 순종한 걸음이 아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진 잘 모르겠어요. 말씀에 순종해보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GNPNEWS]

Y.K.



#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에 커다란 질문이었다”

“기도를 하는 학교”

‘주님과 마음의 결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하는 설렘으로 한 선교단체의 중보기도학교에 지원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시고, 내가 학생이 되어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른다.

아무런 준비 없이 목회자의 사모가 되어 홀로 이 길을 외롭게 걷는 것 같았다.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을 처음 받으며 주님이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말의 의미를 약 6개월간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깨닫게 하셨다.

겁과 두려움에 싸여 있던 나의 옛사람은 훈련이 시작되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  
나에게서 떠나  
주님께 도달하는,  
아웃-리치(Out-Reach)  
하는 것이 행복이었다.  
”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슥 12:10)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가슴으로 울게 하고, 앞드릴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다.

주위의 현실은 늘 무슨 일이 벌어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다 보면 어떠한 상황보다 평안의 복음을 먼저 붙들게 하셨다.

훈련의 마지막 과정인 해외아웃리치를 가려고 할 때 가족들과 주위의 반대가 많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다.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군대가 떨고 있을 때, 홀로 물맷돌을 들고 섰던 다윗의 마



음처럼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의 두꺼운 벽을 허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허락하셨다. 무심하게 교회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나를 어려워할 수밖에 없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하게 하시고, 결국 더욱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기도하니 정말 그 고백이 내 삶에서 실체가 되어갔다. 키르기스스탄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할 때, 기도의 지경을 점점 넓혀 주셨다. 성령님이 내 심령을 조명하실 때마다 말씀을 사랑

하고 갈급하게 하셨다. 기도하는 매시간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게 하셨던 아웃리치였다.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인간적인 섬김과 열심이 죄악임을 깨닫게 하셨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후, 얼마 동안 교회 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누구를 탓할 수도, 무슨 일로도 핑계할 수 없었다. 동일한 존재적 죄인이기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셨다. 그리고 진리가 결론되었다. 복음과 기도로 보여지는 상황과 감정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은 소망 없는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부활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린다.

복음을 알고 나니 시간을 더 내어드리고 싶고, 물질도 기쁨으로 드리고 싶다. 내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살기 원한다. 그분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울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섬리로 가능케 하신다.

‘왜 태어났을까?’ 항상 내 인생에 커다란 질문이었다. 열방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내 삶의 이유를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다. 이제는 당당히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나에게서 떠나 주님께 도달하는, 아웃-리치(Out-Reach)하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이 너무 멋지시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 열방을 위한 부르심으로 나아가겠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마라나타! [GNPNEWS]

이경아 사모



##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 조금이라도 더 배워야지요”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아침 일찍 사역자를 따라 집을 나섰다. 지난 밤보다 세차게 부는 바람이 몸을 휘감자 더욱 춥게 느껴졌다. 차를 타고 얼마를 갔을까? 차에서 내린 사역자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걷다가 허름한 아파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허물어지고 검은 먼지가 쌓인 계단을 올라가는데 배관에서 흘러나온 물이 퐁퐁 얼어붙어 굉장히 미끄러웠다.

### 성경공부를 한 북한의 부부

문을 두드리자 한 청년이 웃으며 맞이했다. 집안으로 들어서니 청년 외에도 부부로 보이는 중년의 사람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오래되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들을 따라 방으로 들어서니 동그런 탁자 위에 노란 펜으로 곳곳에 줄이 그려진 성경교재와 성경, 그리고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내외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배울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다. “솔직히 우리는 조선(북한)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다 말입니다. 그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를 쓰면 뭉텐데 왜 저렇게 머저리같이 사나.’라고 생각했었지요. 긴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려고 그랬는지 완전히 꼬꾸라졌었지요. 기래 살자고 중국에 넘어왔다가 머슴살이까지 하는 수모를 겪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곳을 소개받아 갔는데 참 별나더라 말입니다. 일은 시키지 않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거야

바로 성경공부였지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솔직히 목사님 때문이었지요. 조선에서는 그저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기런대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 주니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자꾸만 말씀을 배우고픈 마음이 들더라 말입니다.”

### 최대한 성경을 외워

4개월째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들은 돌아갈 날을 며칠 앞두고 말씀을 외우고 공부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특히 말씀을 배

우는데 열심인 여인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머리에 넣어가야 한다고 했다.

여인은 이렇게 말했다.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제, 선생님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끼리 서로 토론하고, 기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몽땅 외우느라고 그랬지요.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말씀을 머리에 넣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지요.”

성경공부는 6시간 정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들에게 답답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갑갑할 시간이 없지요.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 조금이라도 더 배워야지요.”라고 대답했다.

이미 이들은 북한 체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고심하며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다. 이들을 통해 북한 복음화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내가 10년 전에 말씀을 들었더라면, 10년만 더 젊었다면...”이라며 안타까워하던 여인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 “남아있는 양떼들을 부탁드립니다”

영국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빌니는 1516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했다. 빌니는 당시 최고의 신학자였던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를 영어로 직접 번역한 성경을 읽던 중 죄인 중에 괴수(딤후1:15)인 자신을 구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딪혔다.

가톨릭의 예식과 봉사로 만족할 수밖에 없던 자신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던 때부터 빌니는 이 감격을 함께 나누고자 케임브리지에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다. 그 모임에는 신학교수를 비롯해 순교자 존 프리스와 윌리엄 틴틀, 휴 라티머 등이 참석했고 모두 빌니의 복음간증을 듣고 개종했다.

1531년 8월 19일 아침 그는 화형장에서 무릎을 꿇고 잠깐 기도를 한 후 친구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다. “남아 있는 양떼들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당신을 보실 것입니다.” [GNPNEWS]

## 뷰즈인 시네마

Views in Cinema 플로렌스 (Florence Foster Jenkins, 2016)

##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해도 노래를 안한다고는 못할 것”



영화 플로렌스는 1900년 초기에 성악가로 활동했던 플로렌스 포스터 쟁킨스의 이야기다. 어린 시절 피아노 신동으로 백악관에서 연주할 만큼 재능이 있었지만 법률가였던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로 음악가의 길을 가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 이후 유산을 상속 받은 플로렌스는 음악의 열정에 뜻을 피우고 사교계에 입문하여 여러 음악 클럽을 만들어 음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녀는

클럽에서 공연을 열게 된다. 하지만 그녀의 노래 실력은 어이없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공연엔 그녀의 노래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차단되고 클럽 사람들과 소수의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었다.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를 매우 즐거워했고 평론가들은 비꼬는 듯한 찬사를 기사에 실어 내보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공연에 더욱 호기심을 갖게 된다.

그 당시 유명한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는 자신의 공연에 재정적 후원을 한 플로렌스를 초대하게 되고 소프라노 성악가의 노래에 감명을 받은 플로렌스는 다시 성악 레슨을 받기로 한다. 새 피아니스트를 뽑아 함께 연습에 돌입한 첫날, 피아니스트는 플로렌스의 노래 실력에 말문이 막혔다. 게다가 그녀를 지도하던 선생님의 아부성 발언에 한 번 더 놀란다. 돈이 많았던 그녀 주위에는 항상 아부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기에 플로렌스는 자기 자신이 노래를 매우 잘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플로렌스는 개인 소장용

음반을 라디오에 보내고 그녀의 노래가 방송을 타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래식 음악의 전당인 카네기 홀을 계약하고 공연을 하게 된다. 3000명의 관객석이 가득 차고 노래가 시작되었다. 잠시 후 심한 야유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이어 사람들은 그녀를 응원하게 되고 공연은 성공하게 된다. 하지만 포스터 지는 그 공연에 대해 악평을 했다. 그녀의 남편은 플로렌스가 그 기사를 보지 못하도록 신문을 모조리 사들였지만 결국 그녀는 버려진 신문을 읽게 되고 쓰러진다.

어느 날 나는 라디오에 소개된 최악의 소프라노로 유명했던 플로렌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 영화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노래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혼자서 얼마나 웃었던지... 그러나 차츰 그녀가 그 실력으로 공연을 하고 음반을 발매하고 죽은 지가 70년이 넘었음에도 2013년에 한 음반회사에서 이 음반을 재발매했다는 사실

을 보며 ‘무엇이 그녀를 움직였으며 사람들은 왜 그녀를 기억할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타고난 목소리는 아니지만 나름 음정과 박자가 정확하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나는 12년 전에 성대 결절로 절망했던 때가 있었다. 높은 음을 낼 수도, 원하는 음을 낼 수도 없었다. 옆에서 내 목소리를 들을까 겁이나 찬양을 할 수도 없었다. 여러 과정을 통해 이제는 사람의 시선과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 그러나 쟁킨스처럼 나보고 카네기 홀에서 노래를 하라고 하면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한 채 형편없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쟁킨스를 움직였던 것은 그녀를 응원했던 사람들과 음악을 사랑하는 그녀의 열정과 꿈이었다. 76세의 나이, 야유와 비꼬는 시선, 비명 같은 고음, 음정 박자도 안 맞았지만 그녀의 용기와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열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복

음을 받은 나의 열정. 복음은 사명자만이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하는 복음이었다. 말을 잘하고 논리 정연한 사람들만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조금 부족해도,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해도 복음은 복음이다. 외마디의 비명 같아도 복음은 누군가의 심령을 건드리고 움직이게 한다.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며 나의 자격을 논하며 복음을 감추는 자가 아닌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나를 드릴 것이다. 이 영화는 허락된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값없는 사랑과 다시 오실 주님을 꿈꾸며 외치는 자로 서게하는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플로렌스는 생전에 “사람들은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할 수 있어도, 노래를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잘 표현하지는 못해도 안전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GNPNEWS]

곽정민 선교사



##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필요한 엄마 선교사”

선교사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는 저녁 7시가 되면 매일 ‘말씀기도’를 한다. 낮에는 사역을 하고 저녁에는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엄마 선교사인 나는 두 시간이 소요되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있다. 그 시간에 아이와 함께 기도 참여하면서 문득 고민이 생겼다. 나의 손에는 성경책과 노트, 물병이 들려 있지만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의 손에는 동화책과 만화책, 어느 때는 큐브 장난감도 들려있다. 그러다 엄마를 의식한 날에는 신앙서적을 뒤늦게 챙기기도 한다.

찬양을 좋아하는 아이는 예배하는 시간에 가끔은 소리 내어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한다. 이 상태로 끝까지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지만 예배가 끝나면 여지없이 책을 보거나 놀기도 하고 매번 잠들기 일쑤다. 한참을 자다가 기도가 끝나면 곧 잠에서 깬다. 일어나 찬 공기를 맞으며 숙소로 돌아오면 쉽게 잠들지 못하는 아이를 보며 ‘그래 내일은 말씀기도 들어가지 말자. 아니 일주일에 몇 번으로 줄여보자.’ 하고 마음을 먹는다. 어느 날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한



다. “엄마, 복음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결론이 된다는 건요? 그리고 결단 안하면 결단 당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두 기도했던 내용들이었다. 아이의 질문에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주면서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 눈을 책을 보고 있지만 귀는 듣고 있지. 잠이 들었지만 기도의 고백들을 통해 아이의 귀에 들려진 진리들은 마음에 남겨져 있었던 것 같았다.

처음에는 말씀기도 안가면 안되냐고 묻기도 했지만 “엄마는 가고 싶은데.”라고 하면 “그럼 가요!”라고 말해주는 아들이 고맙기만 하다.

복음 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선교사로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서 더욱 느끼게 되는 것은 복음이

실제 되는 것은 기도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나의 모든 감각들이 죄인 된 나를 향해 주목된다. ‘아이가 힘들어 하니까, 나는 엄마잖아, 취침 시간이 너무 늦어지잖아.’하는 생각이 들면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일상의 관계, 사역, 가정에서 일어나는 나의 본성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가능하다. 오직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나를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열방을 더 품게 하신다.

나는 좋은 엄마일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다. 다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 필요한 엄마 선교사일 뿐이다. 말씀과 기도 없

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주님 없이는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은 존재일 뿐이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시 40:16)

어느 날 어김없이 말씀기도를 하기 위해 나오는 아들이 친구에게 묻는다. “너는 말씀기도 안가? 나는 가는데...”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손에는 변함없이 만화책이 들려 있다. 손에 무엇이 들려 있든 관계없이 주님이 이 아이에게 진리를 들려주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열방에 생명의 통로로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래도 뭘까? 나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의문이 들 때 망설임 없이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앞도릴 것이다. 주님을 찾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의 구원이 위대합니다.’라고 외치는 자로서 있을 것이다. 이 외침이 열방에 땅끝까지 들려져 우리 주님 속히 오시도록 기도할 것이다.

[GNPNEWS]

전수경 선교사

## 구독신청 안내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17. 1. 6 ~ 1. 19 (가나다 순)

## 개인

김경선 김민성 김선희 김수미 김영세 김유남 박은길 손현수 안병윤 윤경석 이경희 이란영 이준진 임종태 장영선 조민영 조상국 조성실 지석범 진영희 차인순 최근희 최옥희 최정숙

## 교회 및 단체

순회선교단 시흥지체교회 양목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트리니티소프트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